

<말레이시아篇>

말레이시아 山林研究所

— 木材加工製品까지 研究 —

말레이시아山林研究所는 1929년에 設立되었으며 名稱은 山林研究所이지만 活動範圍나 研究目的은 산림뿐 아니라 산림에서 生産되는 木材의 加工, 最終製品에까지 걸쳐 있다.

말레이시아는 全國土의 2/3 以上이 정글이며 海岸에서부터 國土의 어디를 가나 樹木이 우거져 있고 高度에 따라 수목의 種類가 다를 뿐이다.

말레이시아의 輸出 主宗品은 고무 다음에 木材이며 이 목재는 사바州나 사라와크州 등의 低地帶에 生長하는 것들이 商品으로서 가장 價値가 있다. 이 같은 資源의 科學的 研究과 育成을 맡은 곳이 이 연구소 이다.

연구는 산림에 관한 基礎的 研究에서부터 各地方 官署가 直面하고 있는 山林管理問題를 解決하고 木材産業에 대한 산림자원의 관리와 有効利用 등을 연구테마로 하고 있다. 더우기 丘陵地帶의 산림자원의 管理法, 小木種과 小直徑生木의 有効이용에 특히 注力하고 있다.

이같은 研究部門은

- ① 山林研究
- ② 木材有効利用
- ③ 木材化學研究 등 3分野로 大別할 수 있다.

主要研究設備 및 施設로는 펄프, 低라보라토리, 목재연구라보라토리, 病理學·昆蟲學·土壤學라보라토리, 苗床, 樹林園, 植物標本館, 環境制御室, 種子의 低溫保存施設 등을 들 수 있다.

全研究所員은 413名(所長: 사레 빈 모하드博士)으로서 그 가운데 專任研究員은 46명, 準研究員 18名, 技術者 16名, 其他 333名으로 構成되어 있다.

所屬은 1次産業部門의 國家研究機關이므로 研究費 및 運營資金은 金額을 政府가 出捐하고 있다.

현재 연구프로그램은 25個 主題이며 그 가운데서 主要한 것은

- ① 丘陵地帶의 山林再生
- ② 산림의 生態學的 研究
- ③ 산림플랜테이션設立
- ④ 土壤研究
- ⑤ 樹林의 害虫에 관한 生物學的 研究과 그 防止
- ⑥ 種子 및 樹木에 관한 細菌病의 연구
- ⑦ 목재의 腐蝕 등의 原因이 되는 病原菌의 研究 등이다.

또한 목재의 有効이용을 위한 研究分野로는

- ① 목재 및 패널의 機械的 特性
- ② 木材構造物과 接合法의 설계 및 評價
- ③ 목재의 加工研究
- ④ 製材作業의 効率化와 2次加工研究
- ⑤ 어떠한 處理를 加한 목재와 未處理木材의 耐久性에 관한 研究 등이 있다.

이 가운데에는 接着研究, 難燃性研究, 木材保全 研究 등이 包含되어 있으며 펄프製紙研究, 목재의 化學的 研究, 木材纖維의 形態學的 研究, 木材微粉 校의 연구도 중요한 테마이다.

研究所設立前의 業績은 푸른 産業資源의 確保와 목재의 有効이용에 巨大한 足跡을 남기고 있으며 연구소는 연구 뿐아니라 教育面에도 精力의 으로 活動하고 있다. 要求에 따라 목재의 組織, 목재 및 수목의 鑑別, 山林育成指導 등 산림과 목재에 관한 것 이라면 어떠한 테마이건 專門教育을 實施하고 있다.

또 연구소는 말레이언·홀레스트·레코드, 홀레스트·리서치·팜플레트, 티버·트레이드·리플레트 등의 論文과 資料集을 發刊하고 있다. 말레이언·포리스트 레코드는 不定期刊行物이며 연구소의 研究成果와 推進中인 計劃들이 登載되어 있으므로 연구소의 活動全貌를 窺知할 수가 있다.

다른 刊行物에는 山林關係研究論文集, 목재의 流通關係情報集 등이 실린다.